

마을기록물의 수집과 활용

Collecting and using maul records

김덕목(Kim, Duk-Muk)*

1. 마을기록물의 중요성
2. 마을기록물의 존재방식
 - 1) 마을자치조직의 구성
 - 2) 마을기록물의 유형과 존재방식
3. 마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 1) 마을기록물의 수집
 - 2) 마을기록물의 관리
4. 마을기록물의 활용
5. 맺음말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주요 논저 :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을기록관'을 제안한다」(2012), 「한국민속학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론서 집필 방향」(2016), 『민속종교 연구방법론』(2011) 외 다수.

■ 투고일 : 2016년 5월 12일 ■ 최초심사일 : 2016년 6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7월 22일

〈초록〉

이 글에서는 마을기록물의 중요성과 유형 및 소장처, 수집과 보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을기록물은 주민의 일상 활동을 실증하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며 구술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마을문화의 자원이다. 마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유형과 소장처, 존재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마을기록물은 자치조직의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물, 주민의 개인기록물, 마을 안팎에 존재하며 마을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기록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을기록물의 수집방법은 정기적 수집과 비정기적 수집 그리고 일반적 수집과 적극적 수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을기록물은 마을기록관에 보존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마을기록물은 주민의 삶의 질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며 책자, 포스터, 달력, 홍보물, 상징물, 학술 및 교육, 전시, 디지털콘텐츠, 마을사의 사료 및 히스토리마케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마을기록물, 보존, 비정기적 수집, 정기적 수집, 주민의 삶의 질 향상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importance, types, and locations of maul records, and the methods for collecting, preserving, and using them. Maul records reveal the nature of the residents' ordinary lives, help to closely examine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maul, and serve as cultural resources that supplement oral records. Collecting materials from maul records requires understanding the types, locations, and states of the records. Maul records should include records created by the local organizations, personal records by individuals, and records that evidence the history of the maul. The collection methods of maul records are categorized into regular collection, irregular collection,

passive collection, and active collection. These records need to be locally conserved in the maul. They can enhance the residents' lives, and can be used to help produce books, posters, calendars, commercial advertisements, symbols, academic education, exhibitions, digital contents, and historical records. They are also useful in helping to market the history.

Keywords : Maul records, preservation, irregular collection, regular collection, enhance the residents' lives

1. 마을기록물의 중요성

마을은 왜 중요한가? 수십 개의 마을이 모여 지자체를 이루며 지자체가 수백 개 모여 국가가 된다. 마을문화는 지역문화의 근간이 되며 마을이 사라지면 지역문화도 증발된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찾고 보존하는 일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근본이 된다. 주민의 삶의 지척에 있는 마을이 안정되고 문화적 환경이 풍부해질 때 주민의 행복도와 삶의 질도 나아지며 지역의 경쟁력도 향상된다. 마을기록물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마을을 기록하는 일은 주민을 역사의 주체로 만드는 민주주의적 실천이며 동시에 주민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든다. 마을기록물은 주민의 일상 활동을 보여주며 마을사를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료가 된다. 또한 주민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기억의 불완전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다. 마을기록물은 그 자체로도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문화 연구의 토대가 된다.

그동안 기록물 수집은 조선시대에는 사족 중심, 오늘날에 와서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등 주로 공공영역이나 지배층의 자료를 다루어왔

다. 마을에 대한 기록물 수집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을기록물 수집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방법론도 부재하여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마을기록물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관리가 되지 못하고 멸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에서도 마을기록물을 수집하겠다는 고려는 없었으며 마을자치조직의 기록물은 거의 예외 없이 사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을기록물이 시군지나 마을지에 소개되는 경우에도 마을자치조직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개인기록물에 해당되는 문서나 일생의례 사진 등이었다. 이들 자료도 원본은 원고가 집필된 후 보관처가 없어 흩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마을기록물은 시대상과 주민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칫 공백화 될 수 있는 현대사를 위한 실증적인 자료가 된다. 현대 한국사회는 팽창된 도시와는 반대로 농촌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촌향도에 더하여 인구의 고령화는 농촌사회의 증발이라는 위기의식까지 낳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발전은 공업화나 도시화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농민의 근면성과 희생 등 농촌의 기여가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농촌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였으며 어떻게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오면서 현대사의 한축을 담당해 왔는가에 대한 마을을 중심으로 한 자료 수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점점 심해지는 농촌 공동화 현상은 물론, 노년층의 작고와 함께 앞으로 상당부분의 마을기록물들은 소실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농촌은 물론 도시의 마을에서도 기록물이 수집되어야 한다. 근현대의 마을기록물도 세월이 지나면 고문서와 같은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중요한 생활사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내력을 말해주는 이들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며 체계적인 연구와 과학적인 관리가 고민되어야 한다.

마을기록물은 소실성이 강한 반면 보존성이 희박하다. 특별히 기록에 대해 애착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폐기처분한다. 마을기록물은 공

공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도 거의 없으며 또한 보존을 위한 주체도 없다. 마을기록물은 그것이 발생될 당시의 주민이나 생산자의 증언이 있어야 기록물을 둘러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마을의 고령자들이 작고하기 전에 서둘러서 자료를 수집할 때 수십 년이 지난 오래된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에 대한 생존자의 증언을 듣는 것이 용이하다. 특히 마을기록물은 용도가 끝난 직후 혹은 몇 년이 지나면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 현용단계가 끝난 후에도 보존될 수 있지만 마을기록물은 현용적 가치가 끝나면 대부분 소실된다. 따라서 현재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록물은 최근 수년 이내의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의 자료라고 하여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자료도 현재 상태라면 보존을 장담할 수 없다. 미래적 가치를 생각하여 수집 및 보존해야 한다. 최근의 자료는 주로 자치조직이나 이장 등이 보관하고 있다. 오래된 자료는 과거 이장을 했던 사람이나 자치조직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다. 수소문을 하여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마을기록물을 논할 때 국가기록원의 ‘기록사랑마을’ 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기록문화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기록사랑마을은 정선군 함백역 마을(1호, 2008) 이래 파주시 파주마을(2호, 2009), 서귀포 대정읍 안성마을(3호, 2010), 포항시 덕동마을(4호, 2011), 보성군 득량면 강골마을(5호, 2012), 임실군 원천마을(6호, 2013), 신안군 수림마을(7호, 2013), 진해시 균향마을(8호, 2014)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평가를 하며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에 의한 보존시설 건립, 복제, 관련 컨설팅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기록정보자원 공동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이 사업에서는 문서, 도서, 지도, 사진, 생활용품, 기념품, 건물, 시설물 등을 기록물의 범주에

포용하여 기록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기존 향토역사관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물론 기록사랑마을이 마을 전체를 염두에 둔 에코 뮤지엄 형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토역사관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토역사관이 수집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박제화 된 창고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철을 기록사랑마을에서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록사랑마을을 선정해주고 예산지원과 컨설팅을 해주는 일도 의미가 있겠으나 그곳에 기록인프라가 충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수 마을에 대한 이벤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마을의 기록인프라 조성을 추동하겠다는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오래된 자료나 근대 유물을 몇 차례 수집하는 차원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오래된 것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을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이관 받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마을기록관이 생기고 그곳을 중심으로 마을기록물이 수집, 보존, 활용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교육적, 예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록사랑마을’ 선정도 마을에 역사기록물이나 오래된 자료가 많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현재 생산되는 기록물의 수집 및 마을문화에 대한 기록, 보존, 활용을 위한 토대와 주민의 의지 등을 살펴보고 노력하는 마을에 대해 지원하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을기록물의 수집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함한희(2008)나 필자(2012) 등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여 왔다. 이것을 단일주제로 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도한 것은 「성미산 마을 아카이빙 체계 방안 연구」(최윤진 2012)와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매뉴얼』(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3)이다. 최윤진(2012)의 연구는 촌락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로서의 마을과 달리 도시적 생활 스타일에 맞는 커뮤니티 활

동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울시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마을은 1990년대 초 공동육아조합인 ‘우리 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부터 협동조합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마을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성미산 마을의 조직과 단체로는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동네부엌, 작은나무, 성미산대동계, 한땀두레, 성미산밥상, 마포희망나눔, 돌봄두레, 공동육아 어린이집, 공동육아 방과후, 대안학교, 마을배움터, 마을학원, 성미산대책위원회, 자동차두레, 되살림두레(가게), 녹색가정(저탄소마을만들기), 지역 문화교육 공간, 마을극장, 공동체라디오 마포FM, 마을축제위원회, 문화예술동아리, 아카이브, 마을신문, 민중의 집, 마포보건의료인연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연대, 문턱없는 밥집, (사)사람과 마을, 마포 풀뿌리좋은 정치 네트워크(마포풀넷), 마을단체대표자회의 등이 있다. 이들 조직은 교육, 경제, 자치, 협력단체, 문화, 환경, 복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설립은 대부분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출자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다. 최윤진은 이들 조직의 기능과 업무의 특징과 여기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기록물의 종류와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한 후 체계적인 아카이빙 방안과 라키비움(Larchiveum: Library, Archives, Museum)식 모델을 지향하는 마을기록관의 미래상을 구상해 보았다. 최윤진의 연구는 보통의 마을 환경에서 비롯된 마을 기록물 수집 방안이라기보다는 마을을 표방한 특수한 도시환경 즉, 현대 도시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단체들(성미산 마을)의 기록물 수집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최윤진의 연구는 한국의 일반 마을에서의 기록물 수집을 고민함에 있어서나 여타 공동체를 위한 수집 전략을 추동하는 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매뉴얼』은 기록학에서 행해지는 민간기록물 수집 매뉴얼을 마을에 적용한 것이다. 사례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

야기 기록(도봉, 정릉), 학교 기록(성미산), 사진 기록(노원), 축제 기록(은평), 구술 기록(양천 목3동)의 수집 및 관리 절차를 살펴보았다. 이 책은 선도적인 의미가 있으나 마을의 특수성을 바탕에 두고 현장성을 살렸어야 하나 일반적인 수집과 관리의 매뉴얼을 마을이라는 주제에 덮어씌운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아직 마을기록물 수집에 대한 경험과 심화된 인식이 부재한 기록학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다보니 마을기록물의 궁극적 가치와 고유의 존재방식에 따른 본질적인 논의를 살리지 못하고 일반적인 기록물 수집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투영한 것에 그쳤다. 사례로 든 “이야기, 학교, 사진, 축제, 구술”도 마을기록물의 본질적 맥락(마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과 연계되어 다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마을의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 마을기록물의 핵심은 마을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에 있다. 따라서 마을기록물의 수집은 마을자치조직을 본질에 두고 공동체의 역동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서 출발하여 주변부로 파생되어야 한다. 서울의 마을기록물 수집과 활용을 위한 매뉴얼이라면 서울의 마을환경에 대한 전제가 있는 후 마을에서 기록물이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그것에 맞추어 기록물 수집 방법을 제시했어야 했다. 또한 일방적인 매뉴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집자의 입장과 조건 등 미묘한 변수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다. 이렇게 하려면 실제로 마을에 들어가서 기록물을 수집해 본 후 그것에 기초하여 수집 매뉴얼을 제안해야 한다. 마을에서 기록물을 수집한 질적인 경험이나 구체적인 마을공동체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매뉴얼로서의 기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민속기록학의 특징인 현장(마을)조사와 경험에 기초하여 마을기록물의 수집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마을기록물의 존재방식

1) 마을자치조직의 구성

마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생산하는 마을공동체의 자치조직과 단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마을자치조직은 자치규약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사업 추진, 마을환경 관리, 재해관리, 공동시설 및 재산관리 등을 하며 마을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통해 운영되며 임원으로는 이장과 총무, 감사 등과 하부조직의 회장들이 참여한다. 마을총회에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부조직으로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이 있다. 그밖에도 마을에는 생업에 따른 협동을 위한 조직, 친목회 등이 있다. 마을의 생태환경에 따라 마을조직은 차이가 있다. 어촌에는 어촌계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반면 아방리와 같이 도시근교농업을 하는 곳에서는 잡목반이 주목된다. 도시에서는 성미산 마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도시근교마을인 광명시 아방리 마을조직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¹⁾

오늘날 아방리에는 주민 전체의 대표로서 통장이 있으며 새마을지도자도 선출한다.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도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통장은 주민이 선출하지만 요즘은 동사무소에서 월급을 주는데 동에서 월급을 주지 않았을 때는 각 가정에서 봄에는 보리 한 말, 가을에는 벼 한 말을 각출하였다. 근래에는 통장이라고 부르지만 1980년대에는 ‘구장’이라고 불렀다. 통장의 임기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한 때는 1년에 한 번씩 선출하기도 하였고 3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였다가 근래에는 4년 임기로 한다. 한동안은 통장 밑에 반장도 있었으나 근래에는 없어졌다.

1) 아방리의 사례는 디지털광명문화대전(<http://gwangmyeong.grandculture.net>)에 필자가 수록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부녀회와 청년회도 있어 회장과 총무를 두고 있다. 주민 양○옥에 의하면 노인회는 1990년 경 처음으로 농협 창고 건물에 노인정이 생기고부터 결성되었다고 하나 노인회의 회계장부를 보면 1987년도부터 작성된 것으로 보아 1987년부터 시초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계장부에 보면 1987년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한 성금에 동참한 내역이나 경조사비 등 노인회의 대소사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노인회 초대회장은 양○완이며 그 후 김○현, 노○례, 강○근, 양○만, 강○근을 거쳐 양○옥으로 이어져 왔다. 양○옥은 2008년 3월 14일에 회장으로 선정되었다. 임기는 4년이다. 할아버지(20여 명)와는 달리 할머니들(40여 명)은 별도의 노인회를 조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회장과 총무를 두고 있다. 아방리의 자치조직은 정기총회를 매년 1월 1일에 마을회관(노인정 겸용)에서 한다. 그 외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하게 된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오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노인회가 별도로 결산보고 및 기타 안건을 가지고 정기총회를 한다. 낮에는 마을총회를 열어 결산보고를 하고 마을의 중요사안을 의논하며 만약 통장의 임기가 끝날 때면 이때 선출한다. 저녁에는 마을 부녀회의 총회가 있다. 이렇게 마을 조직들이 같은 날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자치조직은 마을공동체의 공적인 일의 수행과 친목 성격도 겸하며 이들이 모여 주민들의 자치가 이루어진다. 마을 원로로서 노인들은 친목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동제와 같은 마을의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주관자로서 참여한다. 마을의 공적인 행사가 있을 때 각 조직은 서로 협조한다. 마을에서는 경노사상을 중시하여 노인회의 활동에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듯 마을 조직에는 주민들의 협동심, 경노사상, 애향심 등이 내포되어 있다.

한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협동심이 잘 드러나는 ‘잡목반’이라는 것이 주목을 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주민들은 농사를 지을 때 상부상조하여 ‘품앗이’라는 것이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만 하더라도 ‘두레’가

활발하였다. 농사일을 할 때는 두레기를 앞세우고 함께 모내기, 김매기를 하고 추수를 도왔다. 풍물을 치고 농요를 부르며 고단한 농사일을 놀이로 승화시키는 농군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마을 주변의 환경도 변했다. 마을 앞 넓은 농토에는 화훼단지나 기타 용도의 건물이 자리를 점유하고 농토의 많은 부분도 외지인의 소유가 되었다. 외지에서 근교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밭가에 움막이나 원두막을 지어 일하다가 쉬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다. 과거 벼농사를 중시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밭이 중시되며 고추, 깻잎 등과 같이 시장에 나가 팔 수 있는 채소의 비중이 높다.

과거와 현재는 이렇게 변했다. 그러나 변화 속에도 유지되는 것이 있다. 두레의 전통은 환경이 바뀌었지만 오늘을 사는 아방리의 민초들에게 유전인자로 남아있다. 바로 잡목반의 협동이다. 아방리는 도시근교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원수로 팔리는 나무, 화훼, 채소 등의 재배가 두드러진다. 흔히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은 경쟁관계로 교류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농사의 경우에는 협력한다. 정보를 교환하고 농협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저리로 용자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아방리에는 ‘잡목반’이라는 모임이 있다. 화훼작목반은 꽃을 기르는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교육을 교류하는 친목모임이다.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우스 작목반을 만들었으며 축산잡목반, 채소잡목반, 수도작잡목반도 있다. 토착주민과는 달리 이방인으로 구성된 능춘사거리 건너편에 있는 화훼단지의 사람들 중에도 일부 원예농업을 하는 사람은 작목반을 구성하고 있으나 토착주민과는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마을자치조직과 달리 아방리에는 문중조직도 있다. 금천 강씨 종친회와 같은 문중조직의 기록물도 허락된다면 마을기록관에서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대개 자기 집안의 문서는 쉽게 공개를 하지 않지만 오래되고 분실 우려가 있는 경우 마을기록관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에는 자치조직, 생업을 위한 협동조직, 친

목조직, 문중조직 등이 있다. 마을조직의 모든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마을총회와 이장의 직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기록물이다. 여기에는 마을 전체의 공적인 대소사가 담겨 있다.

2) 마을기록물의 유형과 존재방식

마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유형과 소장처, 존재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마을기록물은 자치조직의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물, 주민의 개인기록물, 마을 안팎에 존재하며 마을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기록물 등을 총괄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산주체로 보면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소장처로 보면 마을 안과 밖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록물의 유형으로 보면 문서류, 장부, 유인물, 영수증, 증서, 현수막, 그림, 녹취물(錄取物),²⁾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하다. 그동안 수집된 마을기록물은 전자기록물 형태를 띠는 경우가 드물지만 점차 컴퓨터로 문서가 작성되고 소통되는 전자문서의 생산도 늘어날 것이며 웹상에서도 마을과 관련된 기록물(마을활동 소개나 홍보를 위한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 등)이 생산될 것이다. 이것도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을기록물 중 어떤 것을 수집해야 하며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마을기록물은 자치조직에서 생산하고 보유한 것을 1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마을사와 주민생활상을 증거 해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 선별과정에 있어서도 이점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마을기록물을 협의적으로 보면 마을의 자치조직으로 국한해 볼 수 있고 광의적으로 보면 비록 외부의 관공서나 외부인에 의해서 생산되었다고 해도 마을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포함시킬 수 있다. 마을사를

2) 주민과의 인터뷰나 상여소리 등 마을에서는 다양한 음성을 녹취할 수 있고 생산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복원하고 마을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광의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수집의 1차적 대상은 자치조직의 기록이며 그 다음으로는 마을 내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록이다. 마을이 처한 특수한 성격에 따라 기록물의 소장처나 소장자의 중요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는 자치조직을 기점으로 생각해야 한다.

마을기록물을 생산주체별로 보면 첫째, 총회 및 이장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마을자치조직의 자료들이 있다. 여기에는 회의록, 예산결산서, 영수증, 계약서, 마을소유의 재산문서, 의례 및 행사자료 등 종류가 다양하다. 마을 이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다. 추곡수매, 영농자금, 마을부역, 시설 건립 등 마을사적 위치에서도 비중이 높다. 이장은 현재와 과거의 이장들을 통해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 둘째는 동사무소에서 이장에게 하달된 자료이다. 이런 경우 그것에 호응하여 이장이나 주민이 작성한 자료와 세트(set)로 수집하여 기록물 간의 내적 유대관계가 가급적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셋째는 마을 밖의 관공서나 외부기관에서 생산하고 그곳에 존재하는 자료도 있다. 비록 외부에서 발생된 자료지만 이들 자료를 통해 마을과 관련된 실증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 관련 도서관, 국가기록원 등에 마을이 위치한 지역의 근현대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오늘날의 마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넷째는 주민들의 개인기록물인데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의미를 넘어 마을구성원의 일부로 존재하는 개인에게 투영된 마을의 단면이다. 이것을 통해 마을사와 주민생활상을 보충할 수 있는 가치가 중요한 선별기준이 될 수 있다. 다섯째는 마을에 종중(宗中)이나 친목회 등 기타 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수집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을기록물의 생산주체, 소장처, 종류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마을기록물의 유형

	유형
생산주체	시군, 읍면, 마을자치조직, 이장, 주민, 친목회, 종중 등
소장처	시군, 읍면, 마을자치조직, 이장, 주민, 국가기록원, 도서관 등
종류	회의록, 예산결산서, 영수증, 계약서, 마을단위의 사업서류, 마을소유의 재산문서, 계조직의 자료, 의례 및 행사자료, 공문, 물품구입서, 매상장부, 세금청구서, 매매문서, 방문록, 사진류, 현수막, 유인물, 안내문, 주민의 일기, 가정의 가계부
시간	현용(현재 사용되는 자료), 준현용(수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가끔 참고하기 위해 보관 중인 것), 비현용(용도가 끝난 후 오래 되었지만 보관 중인 자료)

마을기록물은 시간적으로 현용자료와 준현용자료, 비현용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현용자료는 현재 사용하는 자료로서 이장이나 자치조직 등에서 보관하고 있다. 준현용자료는 용도가 거의 끝났으나 근래의 것으로서 부득이 참조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보관 중인 자료로 주로 작성된 지 수년 이내의 것이 대부분이다. 비현용자료는 대체로 몇 년이 지나면 폐기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기록물에 애착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남겨졌다. 현용자료는 자치조직을 찾아가면 볼 수 있으나 비현용자료는 보유자를 애써 찾아야 한다.

주민들 중에는 기록물의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여 꼼꼼히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필자가 1998년 성남시 판교에서 만난 이익동씨는 다년간 노인회 회장을 하면서 노인회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일상을 꼼꼼히 기록하였다. 그는 오래된 사진을 보관하고 수시로 판교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런 분의 경우 수십 년이 지난 기록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현용자료는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용과 준현용자료는 현재 모든 마을에 있으며 주민의 협조를 얻으면 접근할 수 있다. 문제는 비현용자료인데 기록물 보유자를 수소문하여 찾아내야 한다. 외부자의 경우에는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 설

문조사, 협조공문 등을 통해 기록물의 보유자를 찾아가서 수집해야 한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은 부록에서 참조할 수 있다.

3. 마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1) 마을기록물의 수집

마을기록물의 특수한 존재방식은 수집에 있어서도 주체(외부인에 의한 수집, 주민에 의한 수집), 시기(정기적 수집, 비정기적 수집, 일회적 수집), 정도(일반적 수집, 적극적 수집-기록의 생산), 범위(협의적, 광의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취해질 수 있다. 아래에서는 수집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해보도록 한다.

(1) 외부인에 의한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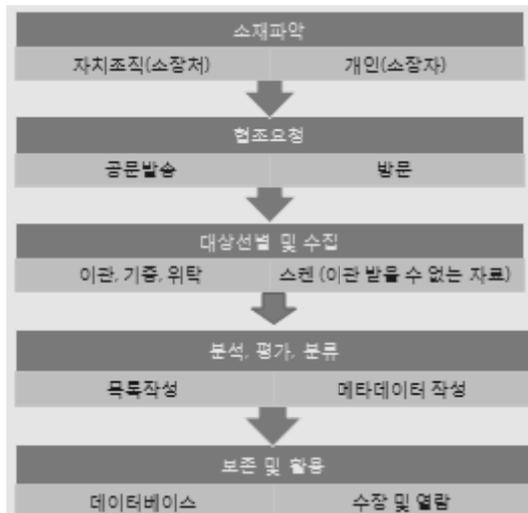
외부에서 마을기록물을 수집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역문화 수집의 목적이거나 연구소나 기관에서 연구 혹은 소장, 전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내부자가 아닌 기록관의 아키비스트, 학술적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자, 전시나 소장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나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 일회적 수집이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수집으로 마을 내의 기록인프라를 조성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외부기관에서 마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집한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장, 열람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외부인에 의한 마을기록물 수집에 있어서는 주민이 수집할 때와 달리 소재파악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으므

로 기계적인 매뉴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마을의 환경과 기록물의 존재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① 소재파악과 협조요청

자료의 소재파악을 위해서는 면과 마을 단위에 공문을 보내어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외부인이 찾아와서 기록물을 보여 달라고 할 때 쉽게 보여줄 사람은 없다. 주민들의 경우 신원이 분명하고 관공서로부터 발급된 공문을 보아야 안심하고 협조를 해주는 경향이 있다. 면에서 행해지는 이장들의 회의(매주 이루어짐)에 참석하여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마을자료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도 하나의 지혜이다. 소재파악을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해도 된다. 이장을 통해서 기본적인 마을기록물의 소재를 파악한 후 마을자치조직을 방문하여 재차의 소재를 확인하여 수집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림 1〉 외부기관에서의 수집



② 대상선별 및 수집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주민들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기록물을 수집할 수는 없다. 주민들 중에 꼼꼼하게 기록물을 챙겨놓은 분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하고 주소문을 하여 기록물을 잘 보존하고 있는 사람³⁾을 중심으로 수집해야 한다. 경로당이나 기타 단체에도 회계장부, 회원록, 일지, 각종 행사자료가 있는데 협조를 구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물론 자료 수집에는 적절한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 무엇을 수집할 지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자료 수집은 기증, 복제, 구입, 위탁 등의 방식⁴⁾이 있는데 이 문제는 기록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료가 수집되면 기록물 보유자나 생산자를 찾아가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만약 자료의 가치가 높고 특별히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녹취를 해야 한다.⁵⁾ 자료를 대출하기 힘든 경우에는 스캐너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원본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하면서 스캔을 해야 한다. 외부기관에서 기록물을 수집할 때 이관 받는 경우가 아니면 원본을 옮겨갈 수 없다. 이때는 동의를 얻어 스캔이나 복제를 해야 한다.

3) 광명시 분성 김씨 종손 김유택씨는 1970~2008년까지 집안에서 관리해온 산소의 수리나 시제와 관련된 사진에 설명서를 부착하여 사진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집수리나 사당 보수 등에도 사진과 날짜, 간단한 설명을 남겨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그는 당시 사용하던 철모나 자신이 받은 표창장 등 군대생활과 관련된 기록물도 잘 보존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사진을 다루며 자신의 주변을 꼼꼼히 기록하는 그는 민간 아키비스트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광명시 이원의 종가(宗家)의 종부 함금자씨는 배냇저고리, 돌복, 아이들 유치원복, 고등학교 때 입었던 교복, 친정어머니께서 집에 남는 천으로 손수 만들어주신 보자기 등을 잘 보존하고 있는 분으로 유명하다.

4) 이 경우 기증이나 이용, 위탁 등에 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

5) 마을에 대한 조사와 이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록물의 소재를 파악한 후 복제 작업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실제 일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기록물의 소재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방법과 기록물 보유자나 관련자들에게 대한 인터뷰 방법을 익혀야 한다.

③ 분석, 평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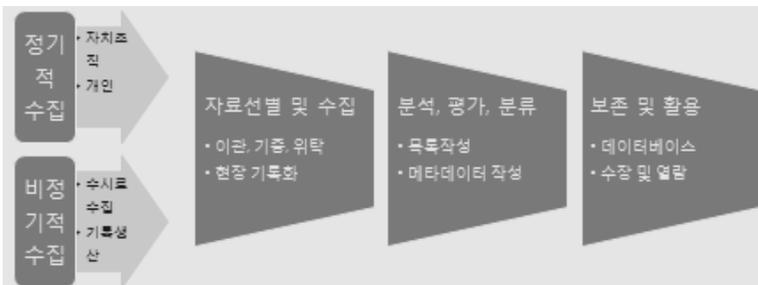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 분류하여 메타데이터를 작성해야 한다. 기록물에 대한 분석은 평소에도 훈련이 있어야 한다. 마을기록물의 경우 수집된 기존의 문서류나 사진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것에 함축된 의미나 문화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것이 없고 현장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기록인은 정해진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간기록물의 경우에는 자력으로 판단하고 수집할 수 있는 문화적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보존 및 활용

자료의 분류와 정리가 끝나고 공개가 가능한 것은 가급적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웹상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좋다. 자료는 널리 공유되고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수집된 원본 자료는 보존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보관해야 하며 열람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주민에 의한 수집

〈그림 2〉 주민에 의한 수집



외부인이 마을기록물을 수집할 때와 달리 내부자(마을활동가)에 의한 수집의 경우에는 입장이나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마을활동가들은 마을 내의 소장처를 알고 있으며 주민과의 친밀감이 있어 외부인에 비하면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적다. 다만 기록물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며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관건이다. 외부인에 의한 민간기록물 수집은 공공기록물과 달리 대개 비정기적인 일회적 수집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기록물을 소장한 마을에 가서 한 차례 수집하여 위탁받아 오는 사례와 같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특정 사업을 통해 거두어 오는 경향이다. 이와 달리 마을활동가에 의한 수집은 정기적 수집과 적극적 수집, 광의적 수집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정기적 수집을 위해서는 소장처와 협의하여 기록물이 비현용 단계에 들어가면 이관 받도록 해야 한다. 대개 마을 노인회에서는 장부나 회의록을 사용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마을활동가들은 평소 이런 단체와 연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을자치조직으로부터 년 1~2회 정도 자료를 이관 받을 수 있는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비정기적 수집은 마을건물의 도면, 주택분양 광고, 현수막, 유인물 등 필요한 기록물이 발생되고 시기를 놓치면 수집이 어려울 때 그 시점에서 바로 수집하는 경우이다. 마을기록물은 생산된 것을 수집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일도 해야 한다. 발생한 기록물을 수집하는 차원을 넘어 기존 기록물이 미처 감당하지 못했거나 결락된 부분을 기록인이 직접 생산해야 할 때도 있다.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주민활동가의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하다. 기록 생산은 수시로 공간의 변화상을 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고 축제나 행사 등이 있을 때 발생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길 수 있다. 노인잔치, 체육대회, 화전놀이, 상례, 종중의 시제 등도 기록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 개보수, 마을길 변경, 화

천복개 등 마을 공간의 변화요인이 될 수 있는 건설이 있을 때도 시간을 맞추어 그 이전과 건설현장의 모습을 남길 수 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일을 기록하여 마을사 편찬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일지(日誌)를 작성하는 일도 고려할 수 있다. 시군의 '통계연보'처럼 매년 마을 통계연보를 마을소식지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마을의 문화나 환경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해나간다고 보다 변화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전과 다른 단층이 생긴다. 따라서 마을사는 이러한 단층을 중심으로 시대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과거 초가집은 '새마을운동'이라는 변화요인에 의해 지붕개량이 이루어지고 도시근교 마을의 경우 '도시의 팽창'이라는 변화요인으로 인해 자연마을이 해체된다. 이렇게 도시에 편입된 마을은 1970년대에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채워지더니 200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급증으로 1층을 주차장으로 하는 도시형 빌라가 새로운 주거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의 급증은 넓은 주차시설을 완비한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이어지며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침체를 가져오게 하였다. 과거와 현재, 변화상, 변화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마을을 기록하고 미시사적 고찰을 통해 마을기록관의 콘텐츠로 이용할 수 있다.

2) 마을기록물의 관리

마을기록물은 마을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을기록관 설립이라는 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임시공간에 보관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마을기록관⁶⁾을 지향해야 한다. 마을기록물이 상당수 소실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록물의 가치를 알

6) 마을기록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 밝힌 바 있다.

지 못한 측면도 있으나 애써 보존하고자 해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었던 것도 원인이다. 주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된다. 마을기록관이 없는 곳에서는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마을회관에 기록물을 모아둘 수 있는 캐비닛을 준비해 두거나 귀중한 자료의 경우 민간기록물⁷⁾을 보존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이 마을기록관으로 모여지면 마을활동가와 시군 단위의 기록관이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기록관에는 기록물 보관 및 전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마을활동가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실도 있어야 한다. 마을활동가들은 마을기록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집과 비정기적인 수집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기적인 수집이 단체나 개인과 사전에 약속이 되어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라면 비정기적인 수집은 마을에서 기록물이 발생될 때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하는 방법이다. 마을활동가들이 마을기록물 수집 및 마을기록화, 마을기록관 운영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관리 및 민속기록학 교육이 필요하다. 마을활동가를 위한 년 1~2회 정도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양교육은 마을기록관 건립 이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교육을 통해서 마을활동가들이 양성되고 그들이 마을기록관 설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기록인프라 조성은 한층 빨라질 수 있다.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매뉴얼』(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3, 3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PC에 기록관리 대상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여 통합 관리하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7) 민간기록물은 일반인이나 민간단체가 생산 취득 보유한 기록물로 고문서, 사문서, 편지, 일기, 메모, 가계부, 사진, 파일, 테이프 등 그 형식이나 내용, 물리적인 형태에 관계없이 민간에서 생산되거나 보유 중인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가리킨다(김상호 2007, 199-200).

4. 마을기록물의 활용

마을기록물은 마을을 자원화 하고 마을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 마을 기록관과 함께 제대로 활용하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을기록물은 학술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마을사를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료로서 기능하며 학술적인 용도나 전시 및 디지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마을기록물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외국인에게는 마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히스토리마케팅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마을기록물을 활용하여 포스터(poster), 달력, 상징물, 홍보물 등을 만들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이나 각종 문화콘텐츠도 개발할 수 있다. 마을기록물 중에는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도 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시대에 생산된 기록물은 희소성과 역사성으로 인하여 가치가 높다. 조선시대의 기록물로는 동계(洞契, 상호부조를 위한 자치조직)나 상두계(喪頭契), 친목계(親睦契)의 문서, 양안(量案, 토지대장), 분재기(分財記, 재산상속 및 분재에 관한 문서), 홀기(笏記), 노동조직인 두레의 문서, 동제(洞祭) 문서, 개인생활사와 관련된 일기류 등이 있다. 경북 예천군 용문면 대저리 함양 박씨가 일기는 1869~1876, 1901~1904, 1909~1933, 1897~1946년까지 방대한 양이 있다. 일기에는 매일의 날씨, 일상적 생활, 행차(行次), 손님접대, 촌락 안팎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및 떠도는 소문, 장시의 물가, 전염병, 사망소식 등 세세한 일과 함께 농사일의 내용, 작업방식, 작업인원, 농황(農況)과 수확량 등의 영농과 관련된 일이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2).

8) 마을의 역사를 홍보물로 제작하여 마을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자원 등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경기도 평택 대곡일기는 신권식씨가 30세 되던 해인 1959년부터 5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다. 50년의 농촌 생활상인 1년 농사력과 농한기 부업, 여성 노동, 금융거래, 물가 변동, 장시 등의 경제생활 및 의식주 생활, 가족·친족·마을생활, 당시의 정치 활동 및 인식, 평생의례, 세시, 민간의료 등 민속 전반에 걸친 자료와 농업사, 경제사, 지역사, 생활사, 생애사에 관련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기를 집필한 신권식씨 자신도 일기에 기록된 중요한 정보나 상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구술의 불완전성을 일기의 기록이 보완해 주며 일기는 당시의 시대상을 읽어낼 수 있는 자료이다.⁹⁾ 이러한 자료들은 학술적 가치가 높다.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 제의 관련 문서는 현재 1928년도와 1960년도의 자료가 남아있다. 물론 1980년대 이후의 자료들은 다량으로 남아 있다. 이 마을에서는 도당굿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다. 갈매동에서는 도당굿과 관련된 오래된 문서는 물론 모든 제기와 악기 등을 당집에 보관하여 왔다. 그러다가 분실을 우려하여 1980년대 중반에 당주집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당주를 맡았던 한 사람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자의로 판단하여 문헌을 불살랐다. 이렇게 하여 오래된 문서가 인멸되었다. 다행히 1928년도와 1960년도의 자료가 남아 있어 도당굿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서 이용되고 있다(갈매동 도당굿 학술종합조사단, 구리시 1996, 55-59). 수년전 이균옥과 김신효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마을에서 1952년부터 현재까지 기록한 도신(禱神) 문서를 발견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짝수 해마다 별신굿을, 홀수 해에는 동제(洞祭)를 행하였는데 문서에는 이러한 사실과 함께 제일, 제주의 성명, 굿거리에 대한 명칭, 굿거리별 소요

9) 일기는 시대를 불문하고 한 개인이 매일같이 경험한 사실과 자아성찰 등을 정리한 글로서 기록의 원천성과 개별성, 유일성 등의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경기문화재단 2007, 20-22). 최근 여러 편의 일기들이 발굴, 소개되면서 역사학을 비롯해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일기와 기록주체, 생산된 시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최효진, 임진희 2015, 96).

비용, 제수(祭需)의 종류, 찬조인명(贊助人名)과 찬조금, 제반 소요 비용 등이 기록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있다(윤동환 2014).

마을기록물을 전시콘텐츠로 활용한 사례는 새마을중앙연수원이나 향토자료관 등에서 볼 수 있다. 2011년 12월 27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새마을중앙연수원 자료관의 마을기록물은 11개 마을 즉,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송사리,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통삼1리 동막마을, 경기도 안성군 공도읍 용두리 하용두마을,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수백리, 충청북도 음성군 신천2리,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2리 토계마을,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화2리,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 진산리 삼군마을,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월곡마을, 서울시 영동AID아파트에서 수집한 것이다.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는 하마터면 소실될 수 있는 새마을운동 당시의 마을기록물을 수집하여 전시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 자료관을 둘러보고 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의 마을기록물은 전시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에서의 새마을운동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현재 DB화 되어 연구자들에게 이용되고 있다. 마을기록물은 광명시 향토행정자료관 등 많은 지자체 전시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마을기록관에서는 마을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할 수 있다.

주민들의 기억은 한계가 있다. 마을 앞 도로가 언제 놓였는지, 마을 회관이 언제 지어졌는지. 마을 주민들이 언제부터 장례를 집에서 지내지 않고 읍내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했는지, 주민들이 언제부터 양잠을 그만두었으며 보리농사는 언제부터 중단되었는지 등 이런 것을 정확히 연도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특정한 사건이나 변화시점에 대해 특별한 기억의 실마리가 있지 않는 이상 구술에 의한 기억수집은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록물이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록, 이장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는 기록물, 매상전표,

마을 앞에 도로가 놓일 때 들어간 토지보상과 관련된 영수증 등 이런 기록물은 당시의 생활상이나 정확한 연대를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마을사 복원을 위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들 자료를 DB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으나 기록물의 유구한 생명력은 앞선 세대의 삶을 대신 말해 줄 수 있다. 마을사의 징검다리로서 마을기록물의 미래적 가치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후세들에게 파급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以上)에서 살펴본 마을기록물의 의미와 유형, 소장처, 수집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마을기록물의 의미와 유형, 소장처, 수집과 보존 및 활용 방안

마을기록물의 중요성	유형과 소장처	수집과 보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일상활동을 실증 -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기여 - 구술의 불완전성을 보완 - 마을문화의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예산결산서, 영수증, 계약서 사업서류, 마을소유의 재산문서, 의례 및 행사자료 등 - 마을자치조직, 친목회, 종중, 이장이나 주민의 자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방법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일반적 수집과 적극적 수집(기록의 생산) - 마을기록관에 보존하는 것을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삶의 질과 정서함양을 위한 기제로 활용 - 책자, 포스터, 달력, 홍보물, 상징물 제작 - 학술 및 교육, 전시, 디지털콘텐츠, - 마을사의 사료 및 히스토리마케팅

마을기록물은 민간기록물로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증거해 주는 실증적인 자료이다. 농촌의 자연마을은 물론 도시의 마을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

물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구성하는 한축이자 밑으로부터의 기록 자료로서 역사연구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가정이나 단체, 이장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등 마을에는 많은 기록물이 있다. 이들 자료는 최근은 물론 과거 어떤 행사나 일에 대한 구체적인 연표나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며 근현대 생활사를 말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마을기록물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은 마을 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마을에 대한 기록물 수집이 활성화되면 지배층이나 공공기록물에 치중되었던 경향에서 벗어나 기록문화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마을기록물의 수집과 활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둘째는 기록물의 생산주체를 마을로 확대하여 마을기록물을 한국 현대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수집된 기록물은 한국 현대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촌락의 실체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로서 기능한다. 셋째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누구나 쉽게 마을기록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넷째는 수집된 기록물은 마을기록관을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마을기록관이 없는 마을에서는 기록관 설립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 연구는 물론 지역기록관 설립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는 마을기록물 수집 사업이 활성화 되면 마을기록물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또한 이러한 경험은 연구방법론을 발전시키고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 마을기록물은 용도가 끝나면 곧 바로 혹은 몇 년간 보관되었다가 파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나 이제 이것의 가치가 인식되고 수집, 보존,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갈매동 도당굿 학술종합조사단, 구리시. 1996. 『갈매동 도당굿: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 학술종합조사보고서』. 구리: 구리시.
- 경기문화재단. 2007. 『평택 일기로 본 농촌생활사 I』.
- 김덕목. 2012.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을기록관'을 제안한다, 『기록학연구』, 33, 39-84.
- 김상호. 2007. 민간기록물의 수탁 보존기구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36, 197-216.
- 윤동환. 2014. 별신굿의 경제적 토대와 제비용 : 계원마을 동문서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60, 99-120.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3.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매뉴얼.
- 최윤진. 2012. 성미산 마을 아카이빙 체계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인간과기록연구단 (편), 『일상 아카이브의 발견』(119-163). 서울: 선인.
- 최효진, 임진희. 2015. 개인 일기의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와 전망, "5월 12일 일기 컬렉션"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6, 92-152.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예천 맛질 朴氏家 日記3 : 日記篇』.
- 함한희. 2008. 민속지식의 생산과 공공성의 문제 : 마을 민속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해서,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속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디지털광명문화대전. 검색일자: 2016.6.15. <http://gwangnyeong.grandculture.net>